

# 광주마사회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이면합의 논란

### 정년 연령 50세로 낮춰 해고하려다 민노총 반발에 무산 16명 전원 고용승계 보장 조건 대외비 약속서 작성 강요

경비노동자 정년 50세 단축 및 인력 감축을 추진<광주일보 4월12일자 6면>하던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이하 광주마사회)가 이를 철회, 고용승계를 보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약속서를 노동자들에게 작성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민노총의 반발로 광주마사회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한국마사회가 전국 30개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한 정년 축소와 인력 감축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면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광주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비구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광주마사회가 제시한 약속서에 서명했다. 약속서에는 경비노동자 16명 전원 고용 승계와 현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경비구역 비정규직노동자 계약만료(4월30일)를 앞두고 경비구역업체 입찰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정년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전국 지사 255명의 경비노동자 중 105명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됐다.

무인경비 시스템과 무인 발권기 등을 도입하면서 길게는 7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을 한 순간에 해고하려한 것이다. 50세 이상인 광주마사회 경비노동자 16명도 집단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민노총과 광주마사회 경비노동자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국마사회는 지

난 17일 울며겨자먹기로 고용승계를 보장했다. 광주마사회는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두 차례 청소구역 노동자들을 집 단해고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문제는 '고용승계 약속서'에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광주마사회의 고용승계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는 경비노동자 정년축소와 인력감축 계획의 차질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체 직원의 90%가 넘는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비율도 문제다.

광주마사회의 경우 경마가 열리는 금·토·일요일에 일하는 직원은 모두 300여명에 달하지만 이중 정규직은 지사장(센터장)을 포함한 4명에 불과하다. 청소구역

노동자 27명과 경비구역 노동자 16명은 계약직이다. 나머지 250여명은 모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다.

광주마사회 관계자는 "광주 경비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마사회 차원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한 사안으로 타지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전국 장외발매소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비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약속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5, 해질 19:08, 달뜨기 16:32, 달지기 04:23

**아침 안개 주의**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8/21	보성	맑음	6/19
목포	맑음	8/18	순천	맑음	9/20
여수	맑음	10/18	영광	맑음	6/19
나주	맑음	6/21	진도	맑음	7/19
완도	맑음	9/20	전주	맑음	7/20
구례	맑음	6/21	군산	맑음	6/17
강진	맑음	7/20	홍원	맑음	6/20
해남	맑음	6/20	홍산도	맑음	8/15
장성	맑음	6/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안바다	안바다	북서~북	0.5~1.0	동~남동	0.5~1.0
남해	남해	북서~북	0.5~1.5	동~남동	0.5~1.5
서부	서부	북서~북	0.5~1.0	동~남동	0.5
남해	남해	북서~북	1.0~1.5	동~남동	1.0~1.5
서부	서부	북서~북	0.5~1.5	동~남동	0.5~1.5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

**주간 날씨**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	☁	☁	☁	☁	☁	☁
10/20	10/21	9/22	10/22	9/22	10/23	9/22

## 검찰, 박준영 당선인 측근 구속

### 신민당 전 사무총장 공천현금 전달 의혹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측근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4·13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 당선인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강진 출신의 출향 인사로, 박 당선인이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사무총장을 맡았다.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에게 3

억6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과 김씨의 자택에서 회계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돈이 실제 박 당선인에게 흘러들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소환 조사 등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 전남경찰, 선거사범 110명 단속·1명 구속

4·13 총선과 관련해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110명에 달했다. 이들의 불법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은 '흑색선전'이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단속 결과, 18일 현재 75건에 11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명은 수사종결했으며, 나머지 102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자는 한 지역신문 대표, 지난해 6~7월사이 무안·신안·영암 선거구 현역 의원에게 대해 '세비로 집을 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34명(31.0%), 인쇄물 배부 19명(17.3%) 등의 순으로 흑색선전이 주를 이뤘다. 이어 금품향응 13명(11.8%), 선거 폭력 9명(8.2%), 현수막 훼손 4명(3.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5명(4.3%)이 감소했으나 후보자 간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4명(11.8%)이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스마트폰 앱 깔고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쓰세요”

### 서구청, 49곳 방범시스템 5월 시행... 폰 흔들면 위치정보 전송

“광주 서구지역 공중화장실에서 위급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흔들어주세요.” 광주시 서구는 비콘(Beacon)을 활용한 첨단 방범시스템이 관내 공중화장실에 도입돼 5월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가 관내 49개 공중화장실에 도입한 비콘 시스템은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블루투스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기술이다. 비콘이 설치된 장소 반경 50~7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일정 신호를 보내면 위치와 함께 위기 상황이라

는 메시지가 경찰 종합상황실에 전송된다. 이용자가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 앱(App)을 설치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4번 이상 누르거나 흔들면 광주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과 서부경찰서 상황실, 관할지구대로 전파돼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이러한 '스마트 안심 화장실'인 셈이다.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 앱은 광주시와 관련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대로면 가로등에 비콘을 설치해 위급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었지만 서구는 공중화장실로 확대 적용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광주 시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등 1000개에 비콘

스마트 안심화장실 이용법

- 1 플레이스토어에서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 앱 다운
- 2 경찰안심신고 ON 상태로 설정
- 3 공중화장실 진입 시 앱 자동 실행
- 4 위급상황시 휴대폰 흔들거나 전원버튼 누름
- 5 광주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로 사용자 위치 전송(지구대 출동)
- 6 보호자에 문자로 위치·위급상황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우범지역 가로등 150개에는 추가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오는 11월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건물 여자화장실 '도촬 영상' 인터넷 유희 30대 여성 수사외뢰

광주의 한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30대 여성이 '광주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서 '지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해당 영상을 받았다. 내가 화장실에 있는 장면이 찍혀 있다'며 촬영자와 유포자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동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밝은광주안과 의원**

#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번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